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5호 【무게 제 25178호】 주제 105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이신경 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명도 따라 뜻깊은 새해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사상도 숨길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대비약, 대책신을 일으키고 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2월 2일과 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이신경 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위원회, 성들과 지방의 당책임 일군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당력사에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도 있다는 무척한 신념을 간직하고 일편단심 당중앙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중앙의 명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확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 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가전면에 나서고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대령을 더욱 든든히 꾸리며 우리 혁명대오를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0년대 당의 기초 축성시기 일군들처럼 높은 혁명적열정과 사업의욕을 가지고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받들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줌으로써 인민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 소리,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되고 당안에 남아있는 특권과 특세, 세도와 판로주의가 집중적으로 비판되었으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 앞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리의를 옹호하고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당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고 회의를 선언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외반혁명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세인을 놀래우는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충만된 오늘의 현실은 선군조선의 불패의 상징이고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당 제 7차대회를 앞두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든든한 도약

대가 마련된 중대한 시기에 열린 이번 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인민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반석같이 다지는 데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명도하시기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빛을 뿌리고

2 편 으 로 계 속

